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I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부제: 성경 기자는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개역, 마가복음 14:27~31]

저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를 지나서 좀 별나다 싶을 만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저 분은 왜 저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 내용은 똑같은 데도 요즈음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을 어떻게 보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이것입니다. 관주가 붙어 있고 한글 한자를 병용하되, 찬송가와 주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이 좋은 이유는 찬송가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송가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지요. 잊점이 굉장히 많습시다. 그런데 저는 느낌상, 찬송가하고 성경책은 붙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게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찬송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찬송도 귀중한 것이지만 성경말씀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붙여두기에는 급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와 함부로 게임을 합니까? 저는 성경과 찬송가를 합본해 두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같이 붙여 놓으면 편리하지요.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조금 별나다 싶을지 모르지만 성경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찬송가 다 뜯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잘 갖고 다니시고, 더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성경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큼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는 말씀을 연속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마가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마가가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고 초대 교회 성도들도 아무 이의 없이 마가복음이라고 부른 그 책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비슷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요. 가는 곳마다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 연설 원고 언제 다 작성합니까? 원고 한 편 쓰기도 얼마나 힘든데 가는 곳마다 멋진 연설문을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작성합니까? 대부분 비서들이 합니다. 비서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가져오면 대통령이 보고 잘 됐으면 그대로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그 밑의 참고사항까지 읽어서 청중을 즐겁게 한 분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수정도 합니다.

비서가 쓰고 읽기는 대통령이 읽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연설문입니까? 그건 대통령의 글입니다. 대통령이 할 말을 비서가 대신 쓰는 것 뿐입니다. 비서가 열심히 썼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대통령의 뜻입니다. 비서들이 아무리 잘 써 와도 대통령이 읽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다르다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써온 원고로 연설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는 명 연설 대부분이 대통령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하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밑에서 설교 원고 써주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답니다. 설교 원고를 여러 분이 써오면 그걸 그대로 읽던지 소화를 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설교예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설교를 써 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이것이야 하고 판별해 내고 그 전하려는 뜻을 선택하는 그 분의 뜻이 담겼다면 그 분의 설교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성경들을 잘 살펴보면 글 쓴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다 쓰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고 또 성경의 여러 다른 예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 혼자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의 입장에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베드로의 양아들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설교를 할 때 마가가 통역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로 마가가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랐을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듣고 옮겨 적은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아니 마가의 입장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혹은 마가나 다른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지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래 전입니다마는 교황이 우리나라에 다녀간 후에 교황이 깔고 앉았던 의자와 방석이 전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제 기억에 깔고 앉았던 방석이 30만원 정도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신을 본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따라 다녔습니다. 살아 있는 신보다 더 하면 더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베드로입니다. 아니 베드로 뿐만 아닙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마가가 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때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적고 있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정말 하늘같이 존경하는 아버지 베드로,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삼촌이나 형님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형님들의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한 이야기예요? 못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최상의 존경을 받던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좋은 얘기 쓰고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 쓰고 있어요? 그래도 좀 창피한 얘기같으면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그렇게 위대한 분의 이야기를 쓰면서 좀 창피한 이야기면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얼버무리기는 커녕 꼬치 꼬치 다 기록합니다. 이 위대한 스승들을 흔히 하는 말로 물 먹이기로 작심한 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개인적인 의도로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초등부 하기학교 가서 예로 든 것이 전도사님 형제가 다섯 명인데 어릴 때 부모님 주머니에서 잔돈 훔쳐서 만화책 보러 가거나 군것질 안 한 사람은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고 네 명이 그랬어요. 이랬더니 한사코 그런 일을 안 한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이래요.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기대를 깨뜨릴 수 없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는 않고 여하튼 다섯 형제 중에서 그런 짓을 안 한 사람은 한 사람 뿐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참 고맙게도 우리 전도사님은 안 했던 한 사람으로 믿어주는 것이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아이들이 세월 지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말아야 하고 얘기했을 때 전도사님이 잘못된 것 쓰겠어요? 그 아이들 같으면 다 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왜 좋은 얘기 많이 있을 텐데 그 얘기 접어놓고 이 창피한 얘기부터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개인적으로 베드로 선생님을 존경했지만 그것은 이 글을 쓰는데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뒷 얘기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피 땀 흘려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잤지요.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운 본문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마가만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 보면 마태는 한 술 더 뜹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누구 앞입니까? 건장한 청년이 칼을 들이댄다거나 아니면 총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러는 바람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누구 앞에서? 조그마한 계집애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야! 나 모른다.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 더 붙여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고만 해도 부끄러울 텐데 이걸 미주알 고주알 그대로 기록하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복음서 기자든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기록한 것은, 가령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마가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들어갔죠? 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가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흩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가니라’ 이 구절이 성경에 들어와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아마 이 청년이 자다가 베 흩이불을 둘둘둘 감고 병사들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안에 내의를 안 입었던 모양이지요. 그 쪽 사람들도 옷이 그러니까요. 도망가는데 걸리거려한다고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왜 적어 놓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도망친 제자가 누굴까 하고 늘 궁금했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틀림없이 자기 얘기다. 마치 남의 얘기인 것처럼 슬쩍 끼워 댔지만 자기 얘기일 것이다.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글을 확인해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마가는 그날 밤에 잤던가 봐요. 얼마 후에 그 길로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어? 잠전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무슨 일일까? 싶어서 자다가 일어난 채로 담요를 둘둘둘 감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영겁결에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것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가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51절의 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 예 알지요.” “누군데요?” “말하긴 좀 곤란한데요.” 쓰고 싶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관련되었던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이야기였던 기록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복음서가 일반책과 다른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4권에 기록돼 있는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빼고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자랑스러운 것과 좀 부끄러운 것을 분류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이걸 답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게 훨씬 많습니다.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했나요? 마태와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마가,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스승님들을 따라 다니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좀 좋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록 하였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예 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예 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인물은 아무래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이끌어 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심히 싸우고 갈라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뜻이 안 맞아서 둘이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졌다면 또 모르지만, 큰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뒤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 런 것까지 다 기록하나요?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질 때 '바울과 바나바를 봐라' 하면서 갈라지는 것 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부작용이 없다면 그 얘기를 생략시켜 주면 위대한 바울의 흠집을 내지 않고 참 좋겠는 데... 쓸데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에 다녔던 반대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 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에 갔던 방향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그 이후 바나바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위대한 바울의 흠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바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바나바에게 그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가 아닙니다.

구약으로 가 봅시다. 성경의 앞 부분 다섯 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 의 한 권인 출애굽기를 요약한다면 모세가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이야기와 율법을 준 이야기,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 세 가지 정도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도 모세처럼 명칭하게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내 가 네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가라. 가라." 해도 선뜻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갔죠? 마지 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꼭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무슨 사명감에 불타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사...' 성경은 참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사? 우리 식의 직 접화법으로 표현하면 "이노무 새끼...." 이런 말 아닐까요? 모세가 자기 얘기를 쓰면서 자기가 민족의 지도 자로 나설 때 좀 멋지게 나갔다고 기록하면 안될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면 좀 간략하게 요약하 면 안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몇 번 거절, 사양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잖아요.

양 무리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장인에게 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굽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장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아냅 니까? 성경퀴즈에는 이런 문제를 내야 재미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오래 되었는데 내 형제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게 해 주세요. 그래 장인이 가 보라고 그러죠. 떠난 지 40년이나 되었 으니까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장인인들 마다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이들 말로 어딘가 좀 쭈굴쭈굴스럽지/창피스럽지/않았을까요? "니가 가서 뭘 한단 말이냐?" 하고 장인이 말할지 모르니까 말을 빙빙 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걸 자기가 기록했습니다. 좀 빼면 안될까요? 아니면 적 당히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안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부분을 얼마나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그 본문을 기록하면서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모세는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많은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십계명요? 모세가 궁리한 것입니까? 십계명에 이어서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모세가 궁리한 겁니까? 아니요.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모세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궁리해서 세운 것입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자체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모세가 기록했을지라도 모세의 뜻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도 모세가 고안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 고안해 낸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사제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 때 레위기를 읽으면서 잘 잤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걱정하신 분은 성경책을 펴세요. 레위기나 출애굽기 뒤쪽을 보세요. 뜻도 모르겠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잠이 잘 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수면제 효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도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잠 오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흥분시키는 책이 되고 맙니다.

어쨌거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오경이라는 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특별상을 받았거나 특별 사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 대우 해 주셨습니까? 모세 업적을 한 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공을 세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특별 대우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일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서운하기는 했겠지만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서 예를 또 한 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동안 여호수아는 자기 결정 하에서 행한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지만 자신이 결정해서 한 일은 하나쯤 있을까요? 전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4장 10절입니다. **‘예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 백성에게 이르케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넌으며...’** 이렇게 말이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한 분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라’**고 되어 있지요? 곧 이어 하는 말이 같은 내용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명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이 일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셨구요? 모세에게 명했고, 그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제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목은 여호수아인데 주인공은 결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은 적어도 기록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서도 우리 스스로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을지라도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인식하셔도 성경을 아주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설교제목에 이렇게 붙여 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기록한 사람은 뭘데? 하시더라구요. 도구인 셈이죠 하니까 ‘기자잖아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자고 모세, 마가, 마태... 는 기자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는 사람 중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사람의 말이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 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거지와 왕자가 뒤바뀐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 마지막에 거지가 되었던 왕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옥새입니다. 똑같은 놈이 둘이 나타났어요. 왕자는 “나는 왕자가 아닙니다.” 하고, 거지같은 녀석이 하나 나타나서 “내가 왕자다.” 하니 난리가 났어요. 신하들이 누가 진짜 왕자냐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옥새 가지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옥새가 없어진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을 진짜 왕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 같은 녀석이 “어디 어디 가보면 있노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두었는데 왜 없느냐고 이 거지가 험난을 하다가 이 왕자한테 묻습니다. “너 저번에 우리가 호두 까먹을 때 쓴 것 있지 그거 치웠지?” 그러니까 왕자가 치웠답니다. “어디 치웠어?” 어디 어디에 숨겨두었데요.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거지와 왕자가 뒤바뀌어 가지고 거지가 왕자노릇을 얼마동안 했는데 이 까짜 왕자는 옥새를 다른 데 감추어 놓고 몰래 호두 까먹을 때 썼어요. 호두 까먹고 자기만 아는 데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옥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왕의 자리를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안겨다 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옆에 끼고 읽으며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사람의 책이고,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했고,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저런 의도로 기록했고...

구구한 설명을 다는 사람은 옥새 들고 맨날 호두나 까먹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신비로움이나 경험이나 기적은 결코 체험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아니 그 옥새마저 없으면 호두 까먹을 때 안 깨져서 땅바닥에 내리치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고 믿고 그렇게 읽는 사람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 옥새로 호두라도 까먹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안겨줄 이 귀중한 책을,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호두나 까먹는데 쓰고 있어야겠냐는 겁니다.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날이 그 날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고 살 만한 세상입니다. 살 만한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고, 끼고 다녀서만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펴져 있는 책이어야 한다고 언젠가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늘 펴 두십시오.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